

# 핵심포스트 직할체제로 당쇄신 이끌 듯

## 민주당 손학규 대표 조만간 당직 인선 관심 사무총장 김부겸·대변인 우제창 의원 유력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조만간 당직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대표가 비록 취임 일성으로 "절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권의 속성상 대표 직할체제가 구축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이번에도 도입된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예비 대권주자인 손 대표의 임기가 1년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재임 기간에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손 대표의 색깔이 확실한 인사들이 주요 당직에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당권 행사로 짧은 기간에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주류 측에서도 인적 쇄신을 친노·486 공격의 명분으로 삼아왔을 뿐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어설픈 공격은 당내 분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쇄신연대의 한 핵심 의원은 5일 "집단지도체제라도 대표가 주요 당직에 직계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다른 비주류 측 인사는 "특별히 문제 있는 인사가 아니면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의 수족이라 할 사무총장과 대변인, 대표비서실장은 손 대표의 측근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사무총장에는 3선의 김부겸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정장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대변인엔 우제창 의원이, 여성 몫으로는

원외 인사인 차영 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각각 물망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능한 외부 인사 영입, 대변인에 기용하는 과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표 비서실장에는 양승조·이찬열·이춘석·조영택 의원이 거명되고 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정책위의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막후 지원 역할을 했던 강봉균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세균 전 대표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기용한 전병헌 의원이 정책의 연속성과 정기국회 전략을 감안해 계속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 의원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손 대표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전 의원은 정세균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포스트의 주요 당직에도 손 대표 측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부는 당 화합 차원에서 계파 간 배분이 이뤄질 가

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석 사무부총장과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손 대표 측근 그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수석부대변인 손 대표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직에는 지역 안배와 정치적 무게를 고려해 대구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수석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같은 영남출신이자 친노인사인 김경길 전 부산시장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신임 대표가 5일 '채소값 파동'의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 배추 재배농가를 찾았다. 취임 일성으로 외친 '국민생활 우선 정치'를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고랭지 배추 현장을 찾은 손 대표가 농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非호남 대표 선택 의미 주시”

### 김무성 한나라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이 손학규 신임 대표를 선출한 것과 관련, “적자가 아닌 비호남 인물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원들의 선택을 아주 의미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의 위기 상황을 혁신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아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진보노선 강화 방안과 관련, “민주당 강령을 살펴봤는데 지향점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일자리창출, 사람중심 시장경제, 소득양극화 해결 등은 한나라당 기본방향과

대동소이하다”고 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채소값 문제와 관련, “야당이 배추값과 4대강을 연계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정치공세”라며 “남부지역에서 파종한 배추 물량이 출하되면 배추값 문제는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참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표 발지인 문제에 대해선 “북한은 전쟁에 대비해 무려 110만톤의 쌀을 비축해 놓은 만큼 김정일이 전쟁비축미를 풀어 북한 동포를 살려야 한다”며 “남한에 쌀이 남으니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정한 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안함 부실대응 국방장관 해임해야”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천안함 사태 발생 직전 우리 군이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많은 부하가 죽고 부대장들이 책임지고 나가는데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은 그대로 앉아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 처리하지 않은 지휘관과 장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

고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 군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북한에서 넘어오든 그러한 중대한 기밀은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에 입수된 정보 누설자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국방장관의 작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 국방에서 천안함 침몰 관련 제2차대 통신문역을 공개했던 신학용 의원은 “자신있게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해 밝혔”다며 “국방장관이 마치 군사기밀로 유출한 것으로 말하는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무위원과 소통 문 활짝 열겠다”

### 김황식 총리 첫 국무회의 주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다섯째인 5일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 등 공경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특히 “국무위원과 소통하는 문을 활짝 열겠다”며 “어려운 일인데 아님든 자주 와서 편안하게 상의해주고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운찬 전 총리의 사퇴와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총리 공백' 사태가 50여 일간 지속되며 일각에서 국정 차질을 우려한 데 대해 “소관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그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 여야 지도부와 3부 요인을

예방한데 이어 이날 오후 김영삼(YS) 전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차례로 예방했다.

김 총리의 예방을 받은 이 여사는 김 총리의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의 안부를 물으며 “중책을 지셨다. 책임이 무겁지만 잘 하실 거다”라고 김 총리를 격려했다. 김 총리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돼 누님이 곤욕 아닌 곤욕을 치렀다”며 “청문회에 와서 잘 해명해서 의혹도 다소 풀렸다. 누님에게 대단히 미안했지만 누님은 절 위로하고 갔다”고 말했다.

정부 수립 후 첫 전남 출신 총리인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남 출신이라고 배려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처가가 전남 목포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장인이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그룹별 진로찾기 분주

## 486 이인영 중심 개혁블록·친노 외연확대·쇄신연대 신주류와 협력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으로 민주당 내부의 역학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룹별 진로 찾기 움직임이 분주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은 '빅3'에 이어 4위로 지도부에 진입, 486 단일화의 힘을 과시한 이인영 전 의원을 구심점으로 당내 개혁블록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당장 다음달에 486 출신의 전·현직 국회 의원 모임인 '삼수회'를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조직으로 확대, 진보적 가치를 기치로 정치적 독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진영의 중심축으로 부상, 대대적 세대교체를 시도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일부 486 인사들이 그동안 주류 측에 편승해 왔다는 점에서 또다시 권력지향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그동안 정세

균 전 대표를 지원했던 486 인사의 상당수가 손학규 대표 진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예기가 돌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 위축을 절감한 친노 진영도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게 위해 정치부 심하고 있다.

백원우 의원의 중도사퇴로 직계 인사의 지도부 진출이 좌절된 데다 집단적 지지를 보냈던 정 전 대표가 3위에 그치면서 진퇴를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노 진영은 외연 확대를 통한 정치적 공간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출신으로 제한했던 '청정회' 모임의 문호를 비(非) 청와대 출신으로까지 개방, 범친노 모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등 소속 인사들의 동반 진출에 성공, 당내 세력교체에 성공한 '쇄신연대'는 6일 긴급회의와 만찬 회동을 잇따라 갖고 향후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쇄신연대의 틀을 유지하며 손 대표로 대변되는 신(新) 주류 측과 협력적 긴장관계를 모색한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모임 소속 최고위원들이 노선면에서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모임 자체가 소(小)계파별 느슨한 연대 성격이어서 단일대오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값비싼 전기요금/난방비 태양광, 태양열 설비로 대비하십시오 **Save Energy**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온수기 시설 설치사업**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난방비 획기적으로 절감해보세요 ~**

3.0kw 설치기준 **800 만원**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3,05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300리터 설치 금액 **350만원**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 의 062)268-5118 / 011-9435-0441

어떠한 공공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JEONG WOO ENG CO., LTD.

용량	집열면적	진공관규격	진공관길이	진공관수	전기허터
300L	4.7㎡	φ58	2000mm	30	1.5kW

사계절 온수 걱정 無  
★탱크 및 지지대:아연도금강철  
★진공관 튜브:3중코팅 진공관  
★단열재:발포 우레탄  
★열교환기:동관 코일 40M